2013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언어영역)

※ 총 12쪽 5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①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
③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④ 법무부에서는 법령의 문장이 어법에 맞는지 국립국어원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한·일 양국의 외교 현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기>

【맞춤법 규정】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	㉡	㉢	㉣
①	양심(良心)	쌍용(雙龍)	비율(比率)	수류탄(手榴彈)
②	예의(禮儀)	협력(協力)	선률(旋律)	총유탄(銃榴彈)
③	유행(流行)	진리(眞理)	나열(羅列)	파렴치(破廉恥)
④	이발(理髮)	선량(善良)	분열(分裂)	몰염치(沒廉恥)
⑤	이동(移動)	사례(謝禮)	균열(龜裂)	불이행(不履行)

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로마자 표기에는 국어 단어를 단어의 발음대로 전음(轉音)하느냐 아니면 음운대로 전자(轉字)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발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음운대로 적는 것도 허용한다.

	㉠	㉡
①	낙성대(Nakseongdae)	집현전(Jiphyeonjeon)
②	백마(Baengma)	묵호(Mukho)
③	죽변(Jukbyeon)	신라(Silla)
④	한밭(Hanbat)	벚꽃(Beotkkot)
⑤	알약(allyak)	대관령(Daegwallyeong)

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술을 체에 밭쳤다.
㉡ 과녁에 화살을 모두 맞추면 만점이다.
㉢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 세금이 잘 걷혀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 태백산맥은 한반도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다.

① ㉠ : '밭치다'는 '밭다'를 강조하는 말이니까 '밭쳤다'는 맞다.
② ㉡ : '맞히다'가 '맞다'의 사동사니까 '맞추면'은 '맞히면'으로 고쳐야 한다.
③ ㉢ :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니까 '붙이라고'는 맞다.
④ ㉣ : '걷치다'가 '걷다'의 피동사니까 '걷혀야'는 '걷쳐야'로 고쳐야 한다.
⑤ ㉤ : '뻗치다'는 '뻗다'를 강조하는 말이니까 '뻗쳐'는 맞다.

5.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분류 절차>
• 용례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확인함.
• 확인한 의미와 용법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례>
ㄱ. 그는 요란한 폭죽 소리에 잠을 깼다.
ㄴ.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흥겨운 분위기를 깼다.
ㄷ. 동생이 할머니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릇을 깼다.
ㄹ. 수술한 다음날이 돼서야 누나는 마취에서 깼다.
ㅁ.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깼다.

	A	B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ㄹ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ㄷ, ㅁ
④	ㄱ, ㅁ	ㄴ, ㄷ, ㄹ
⑤	ㄱ, ㄷ, ㅁ	ㄴ, ㄹ

6. <보기>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단어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 규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① 읊다[읍따], 콩엿[콩녇]
② 콩엿[콩녇], 막일[망닐]
③ 홑이불[혼니불], 꽃잎[꼰닙]
④ 색연필[생년필], 꽃잎[꼰닙]
⑤ 홑이불[혼니불], 색연필[생년필]

7.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기1>

가. 높임법의 분류
- 상대높임법 : 듣는 이를 높이 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 주체높임법 :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 객체높임법 :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나. 높임법의 실현 양상
- 문장 종결 표현
- 선어말어미
- 특수한 어휘 : '잡수시다', '주무시다', '모시다' 따위

<보기2>

ㄱ. 할머니께서는 피곤하신지 고모가 가자마자 주무신다.
ㄴ. 어머니께 여쭈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ㄷ. 저녁 내내 서재에만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나오셨다.
ㄹ. 늦게 퇴근하신 아버지께서는 그제야 저녁을 드셨다.
ㅁ. 어머니는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에 눈물을 흘리셨다.

① ㄱ의 '피곤하신지'는 상대높임법에 해당하고, 선어말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② ㄴ의 '여쭈워'는 주체높임법에 해당하고, 특수한 어휘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③ ㄷ의 '계시던'은 주체높임법에 해당하고, 특수한 어휘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④ ㄹ의 '퇴근하신'은 객체높임법에 해당하고, 선어말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⑤ ㅁ의 '돌아가신'은 객체높임법에 해당하고, 선어말어미로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8. <보기>에 제시한 조사의 예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앞에 오는 말이 그 문장의 다른 말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격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보조사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조사

	격조사의 용례	보조사의 용례	접속조사의 용례
①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그는 이름조차 못 쓴다.	개나리랑 진달래가 피었다.
②	동생은 새 옷을 샀다.	꽃이 예쁘게도 피었구나.	남자는 여자와 다르다.
③	성연아, 생일 축하해.	빨리 오세요. 빨리요.	김치하고 김은 챙겼어.
④	물이 얼음이 되었다.	너까지 날 배신하다니!	새 책가방과 교복을 샀다.
⑤	교실에서 혼자 뭐하니?	많이만 주세요.	나는 개와 고양이가 좋다.

9. '재능 기부를 위한 공익 광고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 문구를 만들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보기>

- 재능 기부와 일반 기부의 차이점을 드러낼 것.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타인이 진실로 원하는 것. 당신의 재능 기부! 메마른 세상을 촉촉이 적시는 단비입니다.
② 무심하면 외로운 사회, 알고 보면 다정한 사회. 당신만의 소중한 재능 기부를 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참여하세요.
③ 기부는 찾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밝은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 모두의 큰 희망입니다.
④ 내가 즐거우면 세상도 즐겁습니다. 자신만이 가진 재능 기부! 기부 활동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늘 소중히 여깁니다.
⑤ 재능 기부! 내가 가진 재능 주면 기쁨 있고 사랑 있네! 당신의 작은 기부로 모두의 큰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갖지 않으시렵니까?

10. <보기>는 '방과후 독서 활동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수정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Ⅰ. 서론 : 학생 여가 활동의 필요성 증대……㉠

Ⅱ. 방과후 독서 활동의 실태……㉡
- 방과후 독서 활동 시간의 부실한 운영

Ⅲ. 방과후 독서 활동 운영의 장애 요인
가. 방과후 독서 활동 시간 및 관련 예산 부족……㉢
나. 방과후 독서 활동을 위한 학교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다. 방과후 독서 활동을 지도할 전문 인력 부족

Ⅳ. 방과후 독서 활동의 활성화 방안……㉣
가. 방과후 독서 활동 시간 확대
나. 방과후 독서 활동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확보
다. 방과후 독서 활동을 위한 학교 예산 확충

Ⅴ. 결론 : 방과후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의 인식 제고……㉤

① ㉠은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방과후 독서 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바꾼다.
② ㉡에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학교 체험 활동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③ ㉢에서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Ⅱ'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한다.
④ ㉣에는 글의 완결성을 위해 '방과후 독서 활동을 지도할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을 추가한다.
⑤ ㉤은 글 전체의 흐름과 부합하도록 '방과후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지원 촉구'로 바꾼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낯익은 사물도 새롭게 보면 낯설어진다. 매일 똑같이 보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 그 사물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지금까지 그것을 보지 못한 내가 너무 바보 같아 보인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는 시인이 사물과 새롭게 만나 느낀 감동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적은 것이다.

다음 시(詩)를 한 수 보자.

오늘 핀 꽃이 내일까지 빛나지 않는 것은
한 꽃으로 두 해님 보기가 부끄러워서다.
날마다 새 해님 향해 숙이는 해바라기를 말한다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그 누가 따질 것인가.

고산 윤선도의 「무궁화」라는 작품이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나라꽃이다. 동요에도 "무궁 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라고 노래한 것이 있다. 무궁화는 이른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 다 진 꽃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어느새 나무 가득 다시 활짝 피어 있다. 그래서 피고 지고 또 피는 그 은근과 끈기의 정신을 기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꽃을 무궁화, 즉 '다함이 없는 꽃'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나라꽃으로 정해 아끼고 사랑해 왔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꽃으로 사랑하는 이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꽃이 하루도 못 가서 땅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꽃 이름도 무궁화라 하지 않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 또는 꽃의 화려함이 하루밖에 못 간다고 '하룻영화꽃'이라고 낮춰서 불렀다. 가진 것도 없이 뽐내는 소인배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였다.

윤선도는 무궁화를 '일일화(一日花)'라고 불렀는데, 이 말도 하루밖에 못 가는 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하루밖에 못 가는 꽃에 대한 윤선도의 생각은 중국 사람과 아주 다르다. 무궁화는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진다. 하나의 꽃으로 두 해님에게 인사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보니까, 무궁화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꽃이 아니라 참으로 순수하고 충직한 마음을 지닌 꽃이 되었다.

㉠다른 꽃들은 오늘 핀 꽃으로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새로 떠오르는 해님에게 인사한다. 시들어 가는 줄도 모르고 새 해님 앞에 자태를 뽐내는 꽃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그렇지만 무궁화는 다르다.

한편,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나타내는 꽃으로 늘 칭찬받아 왔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는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

>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 타고난 성품이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해바라기를 화분에 심어 두고 관찰해 보았다. 매일 아침에는 동쪽으로 향하였다. 한낮에는 바르게 되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기울었다. 태양의 방향과 똑같았다. 해바라기가 동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을 때 내가 화분을 옮겨 서쪽을 향하게 했더니 금세 축 늘어져서 죽고 말았다. 아! 내가 해바라기로 하여금 절개를 잃게 했더니, 해바라기는 절개를 지켜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해바라기는 일편단심의 충성스런 마음을 상징하는 꽃이다. 그런데 위 시에서 윤선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무궁화는 한 태양만을 섬기기 위해 매일 지는데, 해바라기는 매일 매일 떠오르는 다른 태양을 향해 한결같이 고개를 숙이니 오히려 지조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태양을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자. 윤선도가 말하려고 한 뜻을 금세 알 수 있다. 옛말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의 태양, 즉 한 분의 임금만을 섬기기 위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무궁화는 정말로 충성스런 꽃이다. 반대로 여러 개의 태양, 즉 여러 임금에게 모두 다 아첨하는 해바라기야말로 간신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무궁화는 하루 만에 지지만 매운 정신을 지닌 꽃이 되었고, 해바라기는 지조도 없고 아첨만 잘하는 소인배를 나타내는 꽃이 되었다.

위 시에서 두 해님이라 읽은 것은 '양조(兩朝)'인데 두 임금이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한시에서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읽는 것을 '쌍관의(雙關義)'라고 말한다.

윤선도는 효종 임금을 위해 평생 충성을 바쳤던 분이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그를 간신배라고 비방하고 헐뜯었다. 그는 평생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했다. 이 시도 귀양 가서 지은 것이다. 자신을 소인배라고 헐뜯는 조정 벼슬아치들에게 윤선도는 자신은 무궁화와 같은 사람이라고 당당히 대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해바라기 같은 너희들이 바로 간신배가 아니냐고 따졌던 것이다.

이 시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속에 보이는 무궁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궁화와는 전혀 다른 꽃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무궁화를 이렇게 바라본 사람은 없었다.

1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윤선도는 무궁화와 해바라기를 대비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다.
② 이덕무는 해바라기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을 거부하지 않았다.
③ 중국에서는 가진 것도 없이 뽐내는 소인배를 무궁화에 빗대기도 했다.
④ 윤선도는 중국 사람들처럼 무궁화가 하루밖에 못 가는 꽃이라고 불렀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가 절개를 지키는 꽃이라 해서 나라꽃으로 정했다.

12.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②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③ 자신의 주장에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여 반론을 준비하고 있다.
④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⑤ 대립되는 이론을 절충하여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3. 위 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① 자연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② 사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③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가?
④ 작품에 대한 평가는 시대마다 어떻게 변했는가?
⑤ 사물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4. ㉠과 쓰임이 같은 것은?

① 얼굴이 <u>다른</u> 쌍둥이도 있다.
② 날 <u>다른</u>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③ 세상에는 나와 <u>다른</u> 사람이 더 많다.
④ 그는 첫인상과는 전혀 <u>다른</u> 사람이었어요.
⑤ 성격이 <u>다른</u> 사람들끼리는 어울리기 어렵다.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유주의는 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를 주장했다.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은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사상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즉, 경쟁적 산업 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집적과 집중에 의한 자본 축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거대화되었다. 그리고 거대화된 국가는 부르주아의 독점 권력이라는 실질적인 정치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첨예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은 노동자 계급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할 정도로 침해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복지 국가 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수정 자유주의 이론 중에서 ㉠롤즈의 사회 정의론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롤즈는 "진리가 사상 체계의 첫째 덕목이듯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째 덕목이다."라고 하였다. 즉, 정의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서 바람직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를 규제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은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건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면서, 동시에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롤즈의 목표는 자유, 권력, 소득, 부, 기회와 같은 사회적 기본 가치를 분배하는 데에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만을 인정함으로써 최대한의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롤즈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 개인 각자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될 수 있는 자유와 양립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 권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전체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각 개인의 이러한 자유는 전체의 자유와 평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지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롤즈의 이러한 수정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전통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양자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자유주의자들도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공정한 기회 균등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통과한 불평등을 무조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수정 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즉 차등 원칙에 따르면,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통과한 사회적 불평등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아무리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재능의 발휘 여부는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자에게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 인종, 종교, 성, 사회적 배경 등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그 능력의 성과를 오로지 자기만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고려해서 재분배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롤즈와 같은 수정 자유주의자들은 누진세, 무거운 상속세, 광범위한 공공 교육 등을 포함하는 복지 정책과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요컨대 복지 국가적 개입에 의한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을 옹호한다.

그러나 롤즈와 같은 수정 자유주의자들을 평등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다. 롤즈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체제와 같은 복지를 옹호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롤즈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단지 그 불평등한 상태가 최초의 평등한 상태보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나아졌음을 보장할 수 있을 때라고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차등 원리는 엄밀히 말해서 재분배가 아니라 원래적 분배이다. 시장에서는 타자의 손실 없이 이익의 개선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배고픔 없이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이는 자신이 더 먹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타인을 굶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의 전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와 평등도 중요하지만 정의보다는 하위 개념이다.
② 자유와 평등은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마련이다.
③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해서는 양자를 배제한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
④ 자유와 평등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자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⑤ 자유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먼저 등장하였기에 자유를 중심으로 한 평등의 실현이 필요하다.

16. ㉡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① 최소한의 제약으로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한다.
② 만인의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정부를 추구한다.
③ 다양한 가치관보다 다양한 삶의 양식을 지향한다.
④ 충돌의 혼란에서 벗어나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⑤ 경쟁적 산업 자본주의를 통해 노동자 계급의 지위를 보장한다.

17. 위 글에 나타난 롤즈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1>

집 밖에 나가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네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 바깥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네 사람에게는 빵이 하나 있는데 서로 그 빵을 먹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해 빵을 나누어 보자고 했다.

- 빵을 자르는 자는 어떻게 자르든 상관없이 네 조각으로 자른다.
- 각자는 빵 네 조각 중 어느 한 개를 선택해서 먹는다.
- 빵 조각을 선택하는 순서는 집 밖으로 나가 바깥의 상황을 오랫동안 알아보는 정도에 따라 정한다.

<보기2>

ㄱ. 빵을 자르는 자는 되도록 빵의 크기를 균일하게 잘라야 한다.
ㄴ. 집 밖으로 나가 바깥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만 한다.
ㄷ. 가장 작은 조각을 받게 되는 이에게 가장 큰 조각을 받은 이가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
ㄹ. 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다른 이를 위해서 작은 조각을 선택해야만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위 글에 나타난 롤즈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나친 분배 중심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성장 둔화로 인해 사회 전체의 부가 줄어들게 된다.
② 사회 현상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력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③ 재산, 신분, 지위, 피부색, 성, 나이, 교육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이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개인의 자유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 생긴 불평등을 상쇄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배분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⑤ 개인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사회를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위를 가진 상위 집단인 국가에 의한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여요.

- 서정주, 「춘향유문」 -

(나)
뭐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뭐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믄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락카노 뭐락카노
썩어서 동아밧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뭐락카노 뭐락카노
니 흰 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믄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저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 박목월, 「이별가」 -

(다)
누이야
가을산 그리메에 빠진 눈썹 두어 낱을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정정(淨淨)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믄밤의 강이 일어서던 것을
그 강물 깊이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돌로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을
더러는 물 속에서 튀는 물고기같이
살아오던 것을
그리고 산다화 한 가지 꺾어 스스럼없이
건네이던 것을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낱을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더러는 잎새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같이
그렇게 만나는 것을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눈썹 두어 낱이
지금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

-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는 대상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② 화자는 이별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③ 화자는 대상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
④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⑤ 화자는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20. ⓐ~ⓔ에서 돌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것을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공간이다.
②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촉발되는 공간이다.
③ ㉠은 화자의 의식과는 분리된 객관적 현실의 공간이고, ㉡은 화자의 의식에 의해 설정된 추상적 공간이다.
④ ㉠은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잊게 해 주는 공간이고, ㉡은 화자로 하여금 과거를 떠올리게 해 주는 공간이다.
⑤ ㉠은 화자와 대상과의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고, ㉡은 화자와 대상과의 만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22.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② 상징적인 시어와 역설적인 수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③ 수평적 공간과 수직적 공간을 교차시켜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이동시켜 대상을 초점화하고 있다.
⑤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이미지에 의해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23.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목적어와 서술어를 도치시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군.
② '정정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는 화자가 슬픔을 인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군.
③ '이 못물 속에 비쳐 옴을'은 화자의 한의 응어리가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④ '누이야'라는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간절한 그리움과 애상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군.
⑤ 누이와 함께 보던 '눈썹 두어 낱'과 현재 화자가 보고 있는 '눈썹 두어 낱'을 연결시켜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과학은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다. 왜냐하면 과학적 탐구 활동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과학적 탐구 활동에서는 많은 새로운 관찰들을 수집하고 그 수집된 관찰들을 이미 받아들인 이론 내에서 적합하게 만들고, 그 패러다임으로 소수의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함으로써 패러다임을 공고히 하고 확장한다. 그래서 정상과학은 '수수께끼 풀이'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수수께끼를 푸는 데 사용되는 규칙들은 매우 엄밀하며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된다.

쿤에 따르면 인간이 창조하는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과학을 실천하는 활동들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과학이 지속되는 기간까지는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의 근본적인 원리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반증주의에 의해서 논파된 모든 이론을 과학자들이 포기하고 있고 포기해야 한다는 포퍼의 주장에 대해서 쿤은 매우 비판적이다. 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하나의 반증 사례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자신들의 이론들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에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때때로 그 이론이 논박되는 것이 분명할 때도 그 이론을 간단하게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방식의 전략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성공하여 그 영역에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 패러다임 내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서 패러다임의 경험적인 적용의 범위를 확대해 간다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금은 처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변칙 사례들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대할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패러다임이 약간의 반대 증거들과 충돌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패러다임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만약에 하나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전에 발견되었던 변칙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변칙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진 많은 수단과 시간을 대량으로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변칙 사례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그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칙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든지 간에, 결코 사라지지 않으려는 변칙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종종 알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념적인 역설이나 실험적인 반증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례들이 반드시 기존 패러다임의 기본 가정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변칙 사례들의 수가 증가하여 점차로 많이 축적될 때, 흔히 젊거나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기존 패러다임의 핵심 가정들 중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아마도 이들은 그 대안까지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세계를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곧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기존의 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졌던 성공적인 탐구가 쇠퇴하기 시작할 때 과학자들은 점점 더 많이 변칙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과학 공동체가 점차로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위기는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쿤은 설명한다. 아주 강건하지 않거나 많은 현상들을 자신의 영역에 수용할 수 없다면 패러다임은 견고하게 확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자가 전체 학문 분야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만약에 해당 분야의 변칙 사례들이 기존 패러다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변칙 사례들이 실천적으로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기존 패러다임의 적용을 방해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오랜 기간 동안 변칙 사례들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경우에는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과학 공동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게 된다면 혁명이나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한다.

24.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학 이론과 실험의 상관성
② 새로운 과학이론의 정립 과정
③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가능성
④ 과학사를 통해 본 과학자의 의무
⑤ 과학자의 윤리 의식과 가치중립성

2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한 이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상반된 관점을 절충적으로 종합하고 있다.
③ 구체적 현상에 들어 있는 원리를 밝히고 있다.
④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⑤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일반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26.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쿤'의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과학은 문화 현상의 일종이다.
② 과학적 관찰에서는 이론이 우선시된다.
③ 정상 과학은 비정상 과학을 포함하고 있다.
④ 과학자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적 활동을 한다.

27. ㉠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① 사회적 신분의 상승
② 이중 국적(國籍)의 취득
③ 이념(理念)의 전향(轉向)
④ 과부(寡婦)의 개가(改嫁)
⑤ 동종 업계 내에서의 이직(移職)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목(子牧)이 선귤자(蟬橘子)에게 따져 물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에 관해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핏줄을 같이하지 않은 형제다.'라고 하셨습니다. 벗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난 사대부들 중에는 선생님을 추종하면서 그 아랫자리에서 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건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의 비천한 막일꾼으로, 가장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스럽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사귐을 맺고 벗이 되기를 청할 듯이 하십니다.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사오니, 선생님의 문하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이에 선귤자가 웃으면서 답하였다.

"거기 앉아라. 내가 너에게 벗에 관해 이야기해 주마. 속담에 '의원이 제 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 굿 못한다.' 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이 있는데 남들이 몰라주면,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관해 듣고 싶은 체 하지. 그럴 때 예찬만 늘어놓으면 아첨에 가까워서 아무 흥미가 없고, 단점만 지적하면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 같아 비정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겉돌면서 변죽만 울리는 말을 해준다. 그러면 제아무리 크게 책망해도 화를 내지는 않으니, 이는 상대가 꺼리는 곳을 건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다가 물건을 늘어놓고 그릇을 덮어 숨긴 다음 알아맞히는 놀이를 하듯이, 상대가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을 은근슬쩍 언급하는 거야. 그러면 가려운 데를 긁어 준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하지.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것에도 방법이 있느니라. ㉢등을 토닥일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마라.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어 저절로 칭찬이 되게 만들면, '나를 제대로 아는구나!'라고 뛸 듯이 기뻐하지. 이렇게 벗을 사귀면 되겠느냐?"

그러자 자목이 귀를 막고 뒷걸음치며,

"이는 선생님께서 시정잡배나 하인 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지고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니, 선귤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과연 후자이지 전자는 아니로구나. 저자에서는 이익으로써 사귀고, 면전에서는 아첨으로써 사귀는 법이다. 따라서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도 세 번 손을 내밀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묵은 원한이 있다 해도 세 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해지기 마련이야. 그러므로 이익으로써 사귀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써 사귀면 오래갈 수가 없지. 대단한 사귐은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아도 되고, 두터운 벗은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된다네. 다만 마음과 마음으로 사귀고, 그 사람의 덕을 보고 벗을 삼으면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도의로써 사귄다는 것일세. 위로 천 년 전의 옛사람과 벗을 해도 사이가 먼 것이 아니요, 만 리나 떨어져 지내는 사람과 사귀어도 사이가 먼 것이 아니라네.

저 엄 행수란 사람은 나에게 알아주기를 바란 적이 없었건만, 나는 늘 그를 예찬하고 싶어 하여 그를 예찬하는 데 싫증을 느끼지 않네. 그는 밥을 먹을 때에는 든든히 먹고, 길을 걸을 때에는 조심조심 걷고, 졸음이 오면 쿨쿨 자고, 웃을 때에는 껄껄 웃고, 평소 지낼 때에는 바보처럼 보인다네. 흙벽을 쌓고 풀로 덮은 움막에 조그만 구멍을 냈는데, 들어갈 때에는 새우등을 하고, 잘 때에는 개잠을 자지. 아침이 되면 기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가 뒷간을 청소하는데, 해마다 구월이면 서리가 내리고, 시월이면 ⓐ살얼음이 얼지. 그때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 똥, 마구간의 말똥, 외양간의 소똥, 홰 아래 떨어진 닭똥이며 개똥과 거위 똥, 그리고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를 주옥인 양 소중히 긁어 가도 조금도 염치에 손상될 것이 없지. 그 이익을 제 혼자 차지해도 도의에 해가 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많이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할 줄 모른다고 비난하지도 않는다네.

그는 손바닥에 침을 뱉고 가래를 휘두르면서,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꾸부정히 허리를 구부려 일에 열중할 뿐이야.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부귀란 사람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따라서 그에 대해 예찬한다고 해서 영광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헐뜯는다고 해서 모욕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라네.

(중략)

그런데 새우젓을 먹게 되면 달걀이 먹고 싶고, 갈포 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입고 싶어지게 마련이지. ㉣천하가 이로부터 크게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들고일어나 농토가 황폐해지는 것이야.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나 항적(項籍)의 무리는 그들의 뜻이 어찌 농사일에 안주하는 데 있는 자들이었겠나? ㉤『주역』에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 수레를 탔으니, 도적을 불러들일 것이다.'라고 한 것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네. 그러므로 도의에 맞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녹봉을 준다 해도 불결한 것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면 어마어마한 부자 못지않게 부를 이루었다 해도 그 이름에서 썩은 내가 나게 될 걸세. 따라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입속에 구슬을 넣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음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야.

저 엄 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나르는 것으로 먹고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지. 하지만 그가 먹고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롭네. 또한 그의 처신은 지극히 지저분하다 하겠지만, 도의를 지키는 점에서는 지극히 고상하지. 그의 뜻을 미루어 보면, 설령 엄청나게 많은 녹봉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 만하다네. 이로 말미암아 보면, 깨끗하다는 것에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럽다는 것도 더럽지 않은 법이야. 그러므로 나는 먹고사는 일에 아주 견디기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견디는데, 엄 행수를 생각하기만 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지. 진실로 그 마음속에 좀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 행수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이야. 그런 마음을 확대해 나간다면 성인(聖人)의 경지에도 이를 수 있을 걸세."

- 박지원,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

2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양과 행동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② 체제 비판적인 인물을 내세워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③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면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④ 상반된 의견을 가진 인물들 간의 문답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인물을 예찬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29. 위 글에 나타난 '엄 행수'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순박하다
② 소탈하다
③ 부지런하다
④ 욕심이 없다
⑤ 인정이 있다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선귤자'가 아무나 제자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은 자신의 허물을 고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은 적절하게 선을 지키는 행동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은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31. 위 글의 '자목'의 언행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허장성세(虛張聲勢)　② 과대망상(誇大妄想)
③ 적반하장(賊反荷杖)　④ 면종복배(面從腹背)
⑤ 부화뇌동(附和雷同)

32. ⓐ와 단어 구조가 동일한 것은?

① 군침　② 선잠
③ 맨주먹　④ 시누이
⑤ 풋사랑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제 강점기 한국 사학은 민족주의 사학, 사회 경제 사학, 실증 사학이라는 세 학파의 대립과 종합을 통한 한국 사관의 ⓐ모색과 정립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세 학파는 각각 일제 강점기라는 비정상적인 조건 속에서 자주 독립을 되찾기 위한 민족적 신념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며, 전통적인 지배 신분층을 중심으로 한 낡은 역사관을 부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역사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삼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자라왔다.

민족주의 사학은 정신 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비록 국가는 외형을 잃었더라도 정신만 살아 있으면 민족은 살아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언제고 반드시 독립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 사관이다. 가령 박은식은 신(神) 혹은 혼(魂)이 곧 역사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살아 있으면 외형적인 형(形)이나 백(魄)에 해당하는 국가나 국력은 다시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박은식의 신 혹은 혼을 정인보는 '얼'로 표현하였다. 그는 역사의 척주(脊柱)를 이루는 것이 얼이라 생각하고, 오천 년에 걸친 한국의 역사에도 이 얼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얼이 죽으면 곧 민족도 그 역사도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채호는 보다 구체적인 고유한 사상 체계를 중요시하였다. 그는 화랑도의 사상을 한국의 고유한 것으로 보고, 이 낭가 사상(朗家思想)의 성(盛)하고 약함이 민족사의 흥망을 좌우하였다고 믿었다. 그는 한국사를 표면적으로는 한국 민족과 이(異)민족의 투쟁사로, 내면적으로는 고유 사상과 외래 사상의 투쟁사로 ⓑ파악한 것이다.

최남선은 조선 정신을 내세웠다. 그에 의하면 이 조선 정신은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조선 정신을 정치적인 혹은 대외적인 면에서보다도 문화적인 면에서 더욱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가 단군 신화의 연구나 고전의 ⓒ발굴과 간행 같은 면에 큰 관심을 쏟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문일평의 조선심(朝鮮心)은 한국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점, 그러면서도 추상적인 정신으로서 한국 문화를 형성하는 근원이라는 점 등에서 조선 정신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는 조선심을 자연이나 역사의 근원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산물로 본다. 그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선심이 조선 사상으로 구체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글을 지은 세종을 이 조선 사상의 대표자로 본다.

이처럼 민족주의 사학은 한국사 발전의 근본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고, 그 근본이 되는 힘을 민족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민족을 마치 개인과 같은 단일체로 생각하여 민족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근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여겼다. 그 근본이 존재하면 민족도 ⓓ건재하고, 그 근본이 흔들리면 민족도 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사회 경제 사학은 사회사적 측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경제사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양자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백남운이다. 그는 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서 한국사의 발전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는 모든 나라의 역사는 일원적 역사 법칙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생각에서 한국사의 발전을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그는 역사의 발전을 ⓔ제약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역사 법칙으로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가 일원적 역사 법칙이라고 생각한 것은 유물 사관의 공식이었다. 그는 이 공식을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를 통해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에 비추어 한국사를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유물 사관은 물질적인 생산력의 발전에 근거를 둔 사회적인 면에서 한국사를 이해하였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특히 계급의 존재를 중요시해서, 그들이 설정한 각 사회 발전 단계는 각기 독특한 계급의 대립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유물 사관의 특징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생각한 것은 실은 유럽사를 기준으로 하고 얻은 결론에 불과한 것이다.

실증 사학은 구체적인 사실의 구명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려 하였다.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실증 사학자들은 개별적인 사실의 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실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들이 때로는 법칙적인 체계화 자체로부터 해방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이론적 선입견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증 사학의 등장으로 민족주의 사학이나 사회 경제 사학이 자칫 소홀하기 쉬었던 역사의 구체적 연구에 대한 방법의 문제가 새로이 크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33. 위 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민족주의 사학, 사회 경제 사학, 실증 사학은 서로에 대해 배타적이었다.
② 백남운은 한국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사상 체계로 세계사를 체계화하려고 하였다.
③ 박은식의 혼은 한국의 역사와 자연에 내재된 정신이라는 점에서 정인보의 얼과 통한다.
④ 최남선은 세종을 조선 정신의 대표자로 보았고, 문일평은 단군을 조선 사상의 대표자로 보았다.
⑤ 문일평의 조선심은 정신이 문화를 형성하는 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최남선의 조선 정신과 통한다.

34. ㉠의 입장을 강화하는 주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세계는 그 본질에 있어 물질적이며, 그것은 의식과는 독립하여 존재한다. 의식과 사유는 본질을 충실히 모사하는 작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학과 실천에 의하여 객관적인 세계와 그 법칙성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다.

ㄴ. 역사상 각 시기에 지배적 관념은 항상 지배 계급의 관념이었다. 관념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은, 구(舊)체제 내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낡은 관념의 해체가 낡은 존재 조건의 해체와 보조를 맞춰 진행된다는 점을 표현할 뿐이다.

ㄷ. 역사는 평면이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삼차원의 입체 구조로 되어 있다. 맨 꼭대기 비좁은 층에는 단기지속에 속하는 사건사가 있고, 그 아래층에는 그보다 광범위하고 완만한 리듬을 좇아 전개되는 국면사가 있으며, 맨 밑층에는 장기지속에 해당하는 구조사가 있다.

ㄹ. 성장하는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그 문명 자체가 만들어내는 문제, 즉 내적 도전이다. 그 문제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한 문명이 성장하면 할수록 도전의 성질이 물질적인 데서 도덕적, 정신적인 데로 그 차원이 높아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5. 위 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 구성원 내부의 다양한 경향과 특징을 무시하고 있군.

② 신채호의 민족 관념은 지나치게 고유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겠군.

③ 사회 경제 사학에서 체계는 구체적 연구에 입각한 귀납적 결론이 아니라 법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이군.

④ 사회 경제 사학은 하나의 역사 법칙에 입각해서, 민족주의 사학은 다양한 역사 법칙에 입각해서 한국사를 이해하고 있군.

⑤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한 실증사학은 개개의 사실(史實) 위에서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는 작업에 관심이 없겠군.

36.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② ⓑ : 사물의 본질, 원인 따위를 깊이 연구하여 밝힘.

③ ⓒ :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히어 냄.

④ ⓓ : 힘이나 능력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음.

⑤ ⓔ : 조건을 붙여 내용을 제한함.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님믈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山(산) 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ᄃᆞᆯ 아으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ᄅᆞ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ᄆᆞᆯ힛 마리신뎌
술읏븐뎌 아으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나)

하ᄂᆞᆯ이 삼기시믈 일졍 고로 ᄒᆞ련마ᄂᆞᆫ
엇지ᄒᆞᆫ 인생(人生)이 이대도록 고초(苦楚)ᄒᆞ고
㉠삼순구식(三旬九食)을 엇거나 못 엇거나
십년일관(十年一冠)을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누공(顔瓢屢空)인ᄃᆞᆯ 날ᄀᆞ치 뷔여시며
원헌간난(原憲艱難)인ᄃᆞᆯ 날ᄀᆞ치 이심(已甚)ᄒᆞᆯ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ᄒᆞ야 포곡(布穀)이 ᄇᆡ야거ᄂᆞᆯ
동린(東隣)에 짜보 엇고 서사(西舍)에 호미 엇고
집 안희 드러가 ᄲᅵ갓슬 마련ᄒᆞ니
올벼ᄲᅵ ᄒᆞᆫ 말은 반 나마 쥐 먹엇고
기장 피 조 ᄑᆞᆺ튼 서너 되 부터거ᄂᆞᆯ
한아(寒餓)한 식구 일이ᄒᆞ야 어이 살리
이바 아희들아 아모려나 힘써쓰라
㉢죽은 물 상청 먹고 거니 건져 죵을 주니
눈 우희 바ᄂᆞᆯ 졋고 코흐로 픠람 분다

(중략)

세시삭망(歲時朔望) 명일기제(名日忌祭)ᄂᆞᆫ 무어스로 향사(饗祀)ᄒᆞ며
원근친척(遠近親戚)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ᄒᆞ야 접대ᄒᆞᆯ고
이 얼굴 진여 이셔 어려운 일 하고 만타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ᄒᆞ야 녀희려뇨
수릭 후량(餱粮)을 ᄀᆞ초오고 일흠 블러 젼송(餞送)ᄒᆞ야
일길신량(日吉辰良)에 사방으로 가라 ᄒᆞ니
추추분분(啾啾憤憤)ᄒᆞ야 원노(怨怒)ᄒᆞ야 니론 말이
자소지로(自少至老)히 희로애락(喜怒憂樂)을 너와로 홈끠ᄒᆞ야
㉣죽거나 살거나 녀ᄒᆡᆯ 줄이 업섯거ᄂᆞᆯ
어듸 가 뉘 말 듯고 가라 ᄒᆞ여 니ᄅᆞᄂᆞ뇨
우ᄂᆞᆫ 덧 쑤짓ᄂᆞᆫ 덧 온 가지로 공혁(恐嚇)커ᄂᆞᆯ
도롯셔 싱각ᄒᆞ니 네 말도 다 올토다
무정ᄒᆞᆫ 세상은 다 나ᄅᆞᆯ ᄇᆞ리거ᄂᆞᆯ
㉤네 호자 유신(有信)ᄒᆞ야 나ᄅᆞᆯ 아니 ᄇᆞ리거든
인위(人威)로 절피(絶避)ᄒᆞ여 좀쐬로 녀ᄒᆡᆯ너냐
하ᄂᆞᆯ 삼긴 이내 궁(窮)을 혈마ᄒᆞᆫᄃᆞᆯ 어이ᄒᆞ리
빈천도 내 분(分)이어니 셜워 므슴ᄒᆞ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다)

나이 이미 칠십을 넘었고	年已涉縱心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位亦登台司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 만하건만	始可放雕篆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胡爲不能辭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朝吟類蜻蛚
저녁엔 올빼미인 양 노래하네.	暮嘯如鳶鴟
어찌할 수 없는 시마(詩魔)란 놈	無奈有魔者
아침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夙夜潛相隨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 주지 않아	一着不暫捨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使我至於斯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깎아 내	日日剝心肝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니	汁出幾篇詩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滋膏與脂液
살도 또한 남아 있지 않다오.	不復留膚肌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骨立苦吟哦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此狀良可嗤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亦無驚人語
천 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足爲千載貽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撫掌自大笑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笑罷復吟之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生死必由是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此病醫難醫

- 이규보, 「시벽(詩癖)」 -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통스런 현실에서 방황하고 있다.
②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③ 자신의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 있다.
④ 바라는 공간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⑤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38. (가)와 (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③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화자가 자신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⑤ 애원과 호소의 어조로 화자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39. (나)와 (다)의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나)와 (다)는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② (나)와 (다)는 모두 대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와 (다)는 모두 대상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④ (다)와 달리 (나)는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를 취한다.
⑤ (나)와 달리 (다)는 대상을 측은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0.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보기>

조선 후기의 가사는 관념적 내용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일상의 경험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 결과 개인적인 현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41. 주제를 구현하는 데 사용된 발상과 표현 방법이 (다)와 같은 것은?

① 다시 천고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②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 이다지도 욕될까.
③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④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하학적 공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원근법은 공간에 대한 근대적 인식을 보여준다. 근대적 공간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보편적인 공간으로 상정함으로써 사실상 장소로서의 공간이 갖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의미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공간론은 르코르뷔지에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건축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는 인체나 그리스 신전의 비례에서 유래한 기하학적인 공간의 구성이 가장 기능적인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건축의 이상은 근대적인 도시 계획으로, 또한 직육면체 형태의 국제적 양식으로 실현되었다.

장 누벨은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기능만 강조한 ㉠모더니즘 건축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수많은 건축물에 둘러싸이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근대적 기능주의의 결과물들은 '미학적 의지도 없는 미학'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장 누벨이 말하는 미학은 단순히 미와 추를 구분하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미학이 아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닌 특이성의 미학이다. 이때 특이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동질화되지 않는 차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이성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빚어내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 이를 구현하는 데서 발현된다. 이는 독특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이 놀이의 즐거움은 모든 건축물들을 획일적으로 얽어매는 규범이나 경제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때 발생한다.

그는 건축이 기능성과 물질적 요소에 제약될 경우 모더니즘 양식이 보여주듯이 획일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건축의 특이성을 가로막는 이러한 기능성과 물질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물질성을 건축의 테마로 삼았다. 그가 이러한 비물질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어떤 이미지가 재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장 누벨에 따르면 지시 대상을 소거한 현대 회화와 마찬가지로 건축 역시 기능과 경제성이라는 물질적 제약을 넘어서야 한다.

그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카르티에 재단 건물을 보면, 건물의 정면과 보행로 사이에 커다란 필터와 같은 반투명 유리 스크린이 놓여 있다. 정문 출입구로 향하는 중앙 지점을 비워놓은 채 양쪽으로 벌어진 두 개의 유리 스크린은 담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리 스크린을 지나면 역시 반투명 유리로 된 건물의 정면 파사드가 나타나는데, 유리 스크린과 건물 사이에는 커다란 나무가 심어져 있다. 여기서 보면 건물의 표면에 비추어진 나무의 모습은 또다시 유리 스크린에 반사된 모습과 중첩한다. 나아가 건물의 외부 벽면이 실재 건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건물의 외부로 빠져나온 반투명한 유리 외벽은 앞에 있는 하늘을 포함한 전경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보이는 하늘의 모습까지도 투과한다. 이렇게 하여 유리 스크린을 넘어서 보이는 카르티에 재단 건물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고급스러운 건물 외관과 더불어 직관적으로 보아도 몽환적이며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만약 유리 스크린을 제거한다면 미학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장 누벨이 강조하듯이 이 건물은 관객의 시선을 유혹하는 어떤 미학적인 마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 누벨의 이러한 건축적 장치들이 단지 몽환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사라짐의 미학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라짐의 미학을 위해서 그가 택한 건축적 장치는 '미장아빔(mise en abyme)'이다. 미장아빔이란 공간을 심연의 공간, 즉 끝이 안 보이는 무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두 개의 거울을 마주보게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볼 경우 자신의 이미지는 무한하게 소급된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두 개의 거울이 있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속에 그 이미지 공간을 재현하는 또 다른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장아빔의 효과는 카르티에 재단 건물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건물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했던 미장아빔의 효과를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건축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이 기능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기하학적 추상에 매몰되어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기능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여주었다. 해체주의 이후 모더니즘과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주도적인 흐름이다. 장 누벨의 경우도 명백하게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42. 위 글을 바탕으로 현대 건축에 대해 강연하려고 한다. 강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래 건축이 나아갈 방향
② 카르티에 재단 건물의 구조적 특징
③ 근대적 공간론이 건축에 미친 역사적 과정
④ 영화와 소설의 미장아빔이 건축에 미친 영향
⑤ 모더니즘 건축과 대비되는 새로운 건축의 한 경향

43.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공간을 균질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으로 상정할 것이다.
② 공간을 사물들에 대해 독립적이며 불변적인 것으로 볼 것이다.
③ 공간을 인체의 수학적 비례에서 유래한 기하학적 구성으로 볼 것이다.
④ 전 세계 도시는 국제적 양식 건물로 인해 저마다의 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⑤ 건축을 기능별로 구획함으로써 건축과 일상생활이 밀착되는 도시를 추구할 것이다.

44.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① 마주하는 유리벽을 통해 무수한 이미지를 담아낸다.
② 건물 정면의 반투명 유리에 하늘을 포함한 전경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③ 유리 스크린과 건물 사이에 커다란 나무를 심어 관객의 시선을 유혹한다.
④ 외부 벽면을 건물보다 크게 함으로써 건물의 실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한다.
⑤ 주변 환경과 어울린 건물의 신비로운 이미지가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45.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장 누벨'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건축은 이미지가 갖는 재현적 특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② 건축은 건축의 기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③ 건축은 보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심미적 측면을 두드러지게 지녀야 한다.
④ 건축에 장식을 긴밀하게 활용함으로써 외관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⑤ 건축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것과 동질화되지 않는 차이를 추구해야 한다.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 8년 전, 고등학교 일학년 때였다. 술버릇이 점점 ㉠사나워져 가던 형이 전답을 팔고 선산을 팔고, 마침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까지 마지막으로 팔아 넘겼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K시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아보고 싶어 옛 살던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집을 팔아 버렸으니 식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달리 소식을 알아볼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스름을 기다려 살던 집 골목을 들어서니 사정은 역시 K시에서 듣고 온 대로였다. 집은 텅텅 비어진 채였고 식구들은 어디론지 간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골목 앞에 살고 있던 먼 친척간 누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누님의 말을 들으니, 노인이 뜻밖에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A] "여기가 어디냐. 네가 누군디 내 집 앞 골목을 이렇게 서성대고 있어야 하더란 말이냐."
한참 뒤에 어디선가 누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인이 문간 앞에서 어정어정 망설이고 있는 나를 보고 다짜고짜 나무랐다. 행여나 싶은 마음으로 노인을 따라 문간을 들어섰으나 집이 팔린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날 밤 노인은 옛날과 똑같이 저녁을 지어 내왔고, 거기서 하룻밤을 함께 지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일찍 K시로 나를 다시 되돌려 보냈다. 나중에야 안 일이었지만 노인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내게 저녁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당신과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어, 새 주인의 양해를 얻어 그렇게 혼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 자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었다.

한데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떨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 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다 이불 한 채와 옷궤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 두고 있었다.

[B] 이튿날 새벽 K시로 다시 길을 나설 때서야 비로소 집이 팔린 사실을 시인해 온 노인의 심정으로는 그날 밤 그 옷궤 한 가지나마 옛집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남겨서 나의 괴로운 잠자리를 위로하고 싶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한 내력이 숨겨져 온 옷궤였다.

(중략)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겄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겄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의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륵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C]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겄냐. 오목오목 디뎌 논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을 빌고 왔제……."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이 나 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었다.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렁저렁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을 당도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그 길로 차마 동네를 바로 들어설 수가 없어 잿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어머님도 이젠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갑자기 노인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먹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도 이젠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도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이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이번에도 그러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D]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내처 잠이 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노인뿐이었다.

"가만 두거라. 아침 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디 곤하게 자고 있는 사람 뭣 하러 그러냐."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 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얘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그런디 이것만은 네가 잘못 안 것 같구나. 그때 내가 뒷산 잿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 몸뚱이 깃들일 데 마련이 안 됐겄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펴져 들어 있는디, 눈에 덮인 그 우리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디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설 수가 있더냐. 그놈의 말간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 이청준, 「눈길」 -

4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ㄱ. 대상에 대한 호칭을 통해 인물에 대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ㄴ. 인물이 추리 과정을 통해 특정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다.
ㄷ.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ㄹ.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을 사용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7. 위 글의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에서 집이 팔린 것을 숨긴 채 옛집에서 '나'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하룻밤을 재워 보내고 싶은 '노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② [B]에서 '나'로 하여금 옛집의 기억과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사물을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 '나'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노인'의 애끓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D]에서 '나'가 '노인'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회한의 눈물을 삼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C]와 [D]에서 '아내'는 '나'가 '노인'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면서, '노인'의 말에 점점 감정이 북받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위 글에 나타나는 눈길, 불빛, 햇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나'와 관련해서 눈길은 불빛과 연결되면서 몰락한 집안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② '나'와 관련해서 눈길은 불빛과 연결되면서 앞으로 겪어야 할 험난한 미래를 예감하게 한다.
③ '나'와 관련해서 눈길은 불빛과 연결되면서 과거 일에 대한 '나'와 '노인'의 기억이 상반됨을 깨닫게 해 준다.
④ '노인'과 관련해서 눈길은 햇살로 연결되면서 '나'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로 작동한다.
⑤ '노인'과 관련해서 눈길은 햇살로 연결되면서 몰락한 집안에서 홀로 겪어야 할 시련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띤다.

49.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야기1	→	이야기2	→	이야기3
'형'의 행적이 드러남.		'나'가 옛 살던 마을을 찾아 감.		'아내'와 '노인'이 이야기를 나눔.

① 이야기1, 이야기2를 통해 '형'과 '노인'의 갈등 때문에 집안이 몰락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이야기1, 이야기2는 묘사를 중심으로, 이야기3은 대화를 중심으로 작중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야기1, 이야기2, 이야기3은 모두 동일한 공간에 얽힌 사연을 제시하여 구성의 긴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④ '나'는 이야기1, 이야기2, 이야기3을 이끌어 가는 서술자로서 사건 모두에 등장하여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이야기1, 이야기2, 이야기3의 시간적 배경을 달리 설정하여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50.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성질이 <u>사나워졌다</u>.
② 몰골이 <u>사나워졌다</u>.
③ 정신이 <u>사나워졌다</u>.
④ 인심이 <u>사나워졌다</u>.
⑤ 비바람이 <u>사나워졌다</u>.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